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소식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9월호를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동양화 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12:30-2:00, <동양화 교실>이 있습니다.
동양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 윤창우 권사 / 617-640-3639

• 빛글 한국학교 안내

지난 토요일(8/24), 빛글 한국학교 가을학기를 개강했습니다.
기간/ 8월 24(토) - 12월 14(토). 9:00am - 12:00pm.
*문의/ 김 경 집사 / 954-328-5187

• 한미연회 동남부지방 목회자 수련회

동남부 지방 첫 연합모임으로 ‘목회자 수련회’ 가 열립니다.
안건/ 1) 연례지방회 준비, 2)동남부 지방. 신령직 과정고시 및 자격심사 준비
일시/ 8/25(주) ~ 27(화)
장소/ 3046 Nuptial Ln, Lawrenceville, GA 30044, USA

• 남플 가을소풍/체육대회

날자/ 9월 2일(월), 10:00a.m ~ 4:00p.m
장소/ Tradewinds Park/ Grandiosa Shelter
주소/ 3600 W Sample Rd, Coconut Creek, FL 33066
*문의/ 윤성민 전도사

교육부 소식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1. Sunday Service @ 10:30 am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12:2)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섬기는 사람들

- EM-다문화.Youth/ 김학섭 목사, 유초등부/ 이지연 전도사
- 유아유치부.미디어/ 윤성민 전도사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 오르간/ 1,2부 조흥숙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김학섭 노재승
- 방송.미디어/ 주일-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새벽- 이운섭 정철조 김학섭

지난주 헌금 통계 : 총 합계 \$24,986.00

일반헌금 \$17,806.00	십일조: \$9,733.00 주 일: \$1,007.00	남플사랑: \$800.00 감사: \$920.00 기타: \$5,346.00
건축헌금 \$30.00	약 정: \$30.00	
선교헌금 \$7,150.00	속 화: \$	중남미: \$7,15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3권 34호
2024년 8월 25일



2024년도 표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12:2)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이철구
Rev.Chulgoo Lee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행11:23)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목사관(248)227-5400

mcosf.org

< 성령강림후 열네번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2부(10:3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Presider

- ▲ 경배찬송 Opening Hymn / 32장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은혜 아니면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43번
- ▲ 영광송 Gloria / 5장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같이
찬송 Hymn / 284장 (통206)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The Abundant Love of Jesus)

기도 Prayer / 최혜영 권사

기도 Prayer/ 정복순 권사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주는 지혜 참사랑 -

- 주가 계시면 -

교회소식 Announcement /

영상 광고

▲ 봉헌 Offering /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 요한복음(John) 17:11-17

<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

Let them be one in you!

설교 Sermon /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파송찬송 Closing Hymn/ 220장 (통278) **사랑하는 주님 앞에**
(Our Father! Thy dear name doth show)

▲ 축도 Benediction /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4년 8월/9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8월 25일	1부	믿음교구	담당자	최혜영권사	믿음교구
	2부			정복순권사	
다음주 9월 1일	1부	온유교구	담당자	이현숙권사	온유교구
	2부			유철우집사	

금주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17:11)

*인용성구/ 마27:54 창25:32 렘5:25 히12:14

2024 남플 가을 소풍 체육대회



9월 2일 (월) 10:00 **청림 믿음, 드림, 소망, S교구**
Tradewinds Park **백림 온유, 충성, 은혜, 사랑**
Grandiosa shelter

행사를 위한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윤성민 전도사

금주 애찬 섬김

	금주 (8월 25일)		다음주 (9월 1일)
	박홍근집사		유부미,유영래장로
	범사감사		범사감사
	믿음교구		온유교구

영국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의 심리학과 피터 힐스 교수가 인간관계와 관점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우울한 사람일수록 눈길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피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가 느끼는 고립감은 커진다고 합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고난당하거나 우울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시선도 거두는 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들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로, 신앙이 아예 없든지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삶이 우울에 죽을 지경에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만은 결코 거두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유대는 극단적인 위상승배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은 유대 민족의 한 일원으로 예언한 선지자인데, 그는 동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애3:19). 그는 유대 백성이 위상을 승배한 죄로 인해 당하게 된 그 끔찍한 고난을 ‘쑥과 담즙’에 비유한 것인데, 그렇게 쓰디 쓴 고난을 속에서도 그 민족에게 소망이 있음을 간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쑥과 담즙 같은 고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렇듯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든 주 안에서 ‘희망’을 봅니다.

“Suffering is mandatory. Misery is optional!” 이 말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한 ‘고뇌’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는 그 사람의 비전 여하에 달린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1:24). 여기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고난 받을 수 있으나, 그 때 고뇌에 빠져서 좌절 가운데 지낼 것인지, 새로운 비전을 품고 속주쳐 오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세상만사가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믿게 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우리 인생이 만들어간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벧전5:10).

예레미야는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했기에 그 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공훈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애3:22-23). 그는 고난 중에도 고뇌에 빠지지 않았고 주의 자비와 공훈을 아침마다 노래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매일 아침 주신 만나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 매일 아침 신선한 만나를 거두었듯이, 고난 중의 그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 자비와 공훈을 매일 맛볼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선포하는 이 노래는 ‘미래의 희망’을 노래한 것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처럼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는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애3:24-26)

스페인 사람들은 “희망은 가장 마지막에 잃는 것이다” 라는 경구를 목상하며 고난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희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이 ‘희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희망을 소유했던 선지자로 그 백성들의 심령에 이 희망을 심어줌으로, 그들도 고난 받는 상황에서 고뇌에만 빠지지 말고 희망을 노래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충성교구1 (중국-장은광)	충성교구2 (아이티1-김승돈)	충성교구3 (아리조나-이영호)
믿음교구1 (터키-송정렬)	믿음교구2 (쿠바- 김기현)	믿음교구3 (카자스탄-양재성)
믿음교구4 (아이티2-정광)	온유교구1 (볼리비아-김영모)	온유교구2 (도미니카-피터정)
소망교구1(니카라과1-김향자)	소망교구2 (이라크-손기주)	사랑교구1(니카라과2-김규현)
사랑교구2 (파나마-김재한)	은혜교구 (브라질-지덕진)	드림교구(키르기스스탄-임다윗)